

## 등대선교회의 안기창 목사

손 주 완(목사, 강원 원주 작은예수공동체)

평생을 농촌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안기창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전남 순천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번 취재에는 대평교회의 김광욱 목사님이 동행하였다. 순천은 매우 먼 곳이었다. 시간에 맞추어 가기 위해 열심히 달리다 보니 이동 몰래 카메라에 찍히고 말았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지나 넓은 들녘의 익어 가는 벼를 바라보며 한국 기독교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순천에 도착하였다.

순천중앙교회의 뒤편에 자리잡은 고풍스런 기독교진료소 건물 2층에 등대선교회의 사무실이 있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서양 식으로 지은 깨끗한 사무실에서 우리는 안기창 목사님과 새로 총무로 사역하시는 류보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안기창 목사님은 우리를 만나자마자 등대선교회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다. 등대선교회의 역사와 일생을 함께 하신 안기창 목사님에게서 우리는 선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녹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선교전략지도를 펼치시며 농촌에 대한 선교의 열정을 회상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한국 농촌 부흥의 가능성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등대선교회 사무실에서  
(좌로부터-손주완 목사, 안기창 목사, 류보은 목사)

안기창 목사님의 사역은 곧 등대선교회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등대선교회는 1961년부터 순천노회를 중심으로 등대사업을 시작하였다. 순천노회는 1차 7개년(66-74)전도사업 계획과 2차 7개년(74-80)전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51개의 개척후보지에 49개의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미자립교회 123개처 중, 75개 교회를 자립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80년까지 300교회가 확보됨으로써 3개 노회로 분립, 발전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과거 선교사 중심의 농촌선교에서 노회 중심의 농촌선교로 변화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70년 3월 등대선교회가 창립되었다. 외국인 선교사 인후, 타요한, 부명관, 조요섭, 인도아, 노우암 선교사와 안기창 목사, 흥대집 장로 등 8명의 창립위원은 한국 무교회 농어촌 부락에 교회를 개척하고 육성하기 위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오던 농어촌에 대한 등대 선교전략을 체계화하여

등대선교회를 공식 탄생시킨 것이다. 등대선교회의 사업은 먼저 개척 후보지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원칙은 기성교회에서 10리 간격으로 100호 이상의 부락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1974년 전국에 개척후보지 1,181개를 발굴하고 75년 1,000교회 개척운동을 전개하였다. 80년에는 5,000교회 개척 5개년 계획을 총회 전도부의 위촉을 받아 수립하였고, 82년에는 농어촌 인구 50% 신자화 운동을 별양 지방을 중심으로 실천하였다.

또한 81년부터 그 사업을 확대하여 CNEC를 통해서 50명의 현지 선교사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협력선교를 시작하였다. 86년에는 자체적으로 농어촌 및 낙도에 3,000교회 개척운동을 전개하여 94년까지 매년 302개의 무교회 섬에 가정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도대를 피송하였다. 88년에는 농촌교회 자립정책을 수립하였고, 2000년에는 눈을 북한으로 돌려 북한선교 7단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를 통해 북한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등대선교회는 농어촌선교, 해외선교, 북한선교의 세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교회 약 40여 곳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동반자 선교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해외선교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선교는 교회개척과 육성 그리고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위촉받은 선교비를 100%전달하여 쇠퇴해 가는 농어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선교적 목적을 두고 있다.

등대선교회가 지향하는 농어촌 선교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농촌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농촌의 미자립교회는 노령화된 교인, 지도자와 교사의 부족, 자립의식의 부족, 도시교회의 비합리적 지원과 왜곡된 시각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직도 농촌에는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으며 (지역의 인구 중 교인의 비중은 약 10%에 불과) 이농하는 교인은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회가 유지 존속되는 가능성을



볼 때 먼저 교회의 자립의지를 높이고 30% 신자화 운동을 전개하며 교회의 연합과 농촌교회의 성장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지속적인 교역자 훈련 및 관리, 합리적인 자립정책 등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개혁과 자립에 대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인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이 시대에도 선교적 열정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농촌에 교회를 개혁하고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농어촌 교회는 지금까지 도시교회의 못자리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농어촌 교회는 민족복음화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농촌교회의 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농촌교회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 것입니다.”